



사 랑 의 실 천

윤 공 희 대주교 (광주대교구장)

Practice of Love

Most Rev. Victorinus K. Youn, S.T.D., D.D.
Archbishop of Kwangju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가톨릭 병원 협회의 78년 가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아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대하면서 저의 마음속에 맨 먼저 일어나는 정은 감사의 정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병을 치료하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건강을 되찾았으며, 그러므로써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건강을 회복해 준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하게 되며, 따라서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기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톨릭」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가톨릭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주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은혜를 베푼 사람중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덕택에 저도 은혜를 베푼는 은인이 되었으니,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가톨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저에게 우리 병원이 얼마나 의술이 좋고 친절하고 치료비를 적당하게 받더라고 자랑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저는 저 자신을 자랑해 주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물론 기분만은 아닙니다. 가톨릭 병원은 우리 교회의 것이니 만큼,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

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병원사목」에 대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실질적인 좋은 결론을 내리셔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사목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가톨릭 병원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몇가지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의의도 많이 이야기 되었고 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다시 되풀이 함으로써 우리의 활동에 더 많은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 병원은 첫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고, 둘째는 선교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셋째는 정신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I. 병원은 첫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사랑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병을 고쳐 주시기도 했지만, 병자를 방문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또 병을 고쳐주라고 명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대부터 인간의 병은 기술로써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만인이 인식하여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가톨릭 병원의 가장 큰 의무는 우선 병을 낫게 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가톨릭 병원이라고 해서 일반 병원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병원일수록 의술에 뛰어나야 할 것이고 현대 의술의 첨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진단과 투약을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가톨릭 병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의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투자하여 명의가 많은 명병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가톨릭 병원은 「가톨릭」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이상 병치료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동기 자체가 가톨릭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원 운영의 목적이 하느님께 봉사하고, 인간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병원을 영리를 위한 기업으로 생각하는 풍토가 우리 주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풍토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병원을 운영할 때 수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병원 자체의 존폐가 좌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무료치료를 베풀다가는 의사와 간호원들에게 적당한 보수를 지급하지도 못할 것이고, 기제나 약품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자연히 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정신입니다. 자칫하면 병원 운영의 구실이 우리를 순기업가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경향과 계속 투쟁하여 사랑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병자들과 버림받은 병자들은 우리의 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이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이 사회에 정의를 구현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7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말로만 정의를 외쳐서는 안됩니다. 사회가 그 복잡한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려둔 인간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건강의 혜택을 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정의를 실제로 구현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정의는 그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기여가 될 것입니다.

가톨릭 병원 운영이 사랑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병원을 운영하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다음 세가지에 대해 반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 주교회의는 1971년에 독일 주

교회의 산하 MISEREOR의 후원을 얻어서 한국에 있어서의 가톨릭 사회 경제사업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교회의의 의뢰를 받아서 이 평가 조사를 실시한 서강대학교 사회문제 연구소는 1976년에 그 조사 결과를 「한국의 사회 발전과 가톨릭 교회의 역할」이라는 문헌으로 펴냈습니다. 다음의 세가지 질문은 이 문헌에서 내세운 것입니다.

① 우리 병원은 가난한 사람들, 특히 다른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사람들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② 우리 병원은 이 세상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가?

③ 우리 병원은 환자의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 건강과 인간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Ⅱ. 둘째로 가톨릭 병원은 선교의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 운영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 상당한 반발을 받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은 본당이 아니라, 병원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것만을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기도 합니다만 선교의 목적이 결여된 가톨릭 병원은 그 존재의 온전한 의의를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제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톨릭이란 명칭을 붙이고 있는 그 자체가 물론 선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현실적에서 볼때,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선교를 우리 가톨릭 병원에서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병원사목인데 이 기회에 선교의 방법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연구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가톨릭 병원에서 수행해야 할 선교는 주로 예비선교 또는 간접선교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직접선교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존재와 정신,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병원을 통해 더 널리 알려지고 받아드려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Ⅲ. 셋째로 가톨릭 병원은 정신 제발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인간을 인간이하로 저하시킬 수도 있지만 인간은 또한 고통을 통해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은 인간을 정신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합니다. 물질만능주의와 향락주의가

성행하는 이 세대에 정신 세계를 갈망하게 하고 정신 세계를 구원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톨릭의 사명입니다. 병원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취급하는 곳이니 만큼, 그들에게 인내를 가르치고 자신의 허약함을 인식시키며 하느님께만 의존하도록 가르치는데 가장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자들 뿐만 아니라 병원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우리의 교육적 배려를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병자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역시 일종의 자기 희생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톨릭 병원에 종사하는 의사와 간호원에 대해서 병원측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이

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 느낌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구체적인 연구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구체적인 대안 없이 여러분에게 여러가지 문제를 던지고 갖가지 주문만을 하고 보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관대한 이해심에 신뢰를 걸면서, 여러분의 사업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이들에게 육체적 영신적 복지를 증진시켜 주게 되도록, 모든 요긴한 배려를 다하실 줄로 믿으며, 이 세미나의 성공을 빕니다. *

< 12 면에서 >

화를 해보면 천주교회와 관련없는 사람이 몇 안되는 것 같다. 냉담자 아니면 조당중에 있던가 아니면 관면혼배는 했었지만 아직 시작을 못했거나 영세 준비를 하다 타 지방으로 전근했던 관계로 마음은 있어도 안면이 없어 못나간다는 사람, 모두 열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사정들을 알게 되면 할 수 있는대로 소속 본당으로 연락을 해야 될 줄 알면서도 할때도 있지만 못하는 때도 많다.

병원전교를 하게 된다는 발표를 원장님께서 공동체앞에 말씀 하셨을때 어느 수녀님 한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 기억에 남아있다. 즉 아직 젊은데 병원전교를 시키느냐? 고 말이다. 그 수녀님께서선 나를 혹시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젊게 보여서 하신 말씀인지 나는 알수 없었다. 그러나 그때 나는 병원전교에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로도 대꾸 할 수 없었다. 그 얼마전에는 노인 수녀님 한분이 중환자가 있을때 배세를 주셨고, 또 준비도 열심으로 시키셨으며 전교

열이 보통 아니셨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국으로 가신 다음에 제가 병원전교를 맡게 되었던 것이다.

그럼 병원전교는 누가 할 수 있나? 나름대로 말씀 드린다면 해보고 싶은 마음만 있는 수녀님이라면 노인이건 젊은이건 환경에 따라서 저마다 할 일은 얼마든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직 병을 접낸다든가 죽는 사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분이라면 생각할 문제도 되겠지만, 저는 누가 주사 맞는 것도 못보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었다. 수녀는 수도복 자체가 벌써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뿐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를 마음의 안도감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언제나 어디서나 서로 주고 받는 것을 흔히 듣게도 된다. 이상한 것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느님께서 어쩌면 약하디 약한 여자들의 힘을 빌려서 당신나라 백성들을 늘리시고 당신의 영광을 떨치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그 약한 여자들 가운데 저를 또한 불러주신 그분께 감사드리며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